



즉시 배포용: 2019 년 2 월 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임시 해고된 연방 직원들을 위해 소득세 납세 90 일 연장 승인

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및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 실직 보험 및 기타 지원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혜택을 확장하라는 주지사의 지시에 뒤이은 조치

정부 폐쇄로 영향을 받은 연방 직원들을 위해 지방 재산세 마감일을 90 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임시 해고된 연방 직원들에게 체납 벌금을 면제하고 4 월 15 일 소득세 환급 신청 마감일 후 90 일 동안 징수를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실직 보험 혜택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원을 가속화하고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에는 해당 직원들이 임대료, 식료품, 공과금의 공공 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도 지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정부 폐쇄의 영향을 받은 연방 직원들을 위해 지방 정부 지방 재산세 납부 마감일 연장 허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수천 명의 직원의 삶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뉴욕은 다시 한번 서민 가족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뉴욕 주민들은 한 해가 시작하고 몇 달 안에 주 및 지방세 고지서 지급 또는 분할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오늘 조치로 연방 정부 폐쇄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한 연방 직원들에게 시급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항상 우리 주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편에 설 것이며 우리 주민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공격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뉴욕 주민을 돕고 연방 정부 폐쇄의 영향을 완화하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월 22 일, 주지사는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에 연방 정부 폐쇄로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학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지시로 뉴욕 주립 대학교(SUNY)와 뉴욕 시립 대학교(CUNY)는 학비 및 기타 관련 지급을 연기했으며 연방 직원, 연방 직원 가족, 연방 정부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체납비 및 벌금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폐쇄 기간 동안 연방 급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K-12 학생들이 굶지 않게 보장하기 위하여 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에 학생 기아 방지(No Student Goes Hungry) 프로그램을 통해 영향을 받은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명한 법안에 따라 지방 정부 및 교육구는 연방 정부 폐쇄로 인해 임시 해고되거나 미지급 지정된 연방 직원들, 그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납부를 위해 재산세 징수를 9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90 일 연장은 연방 폐쇄 기간이 끝날 때 시작할 것이며 연장 기간 동안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및 벌금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